

제 1 교시

국 어

1. '준희'의 말하기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서: 같이 떠들어도 늘 나만 혼나서 속상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준희: 네가 평소에도 너무 떠드니까 그렇지. 혼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 ① 과도한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② 대화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
③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④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

2.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손님: 사장님, 티셔츠를 구입할 건데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 있을까요?
사장님: 가능해요. 비용이 3,000원 추가됩니다.
손님: 제가 스무 벌 이상 구입하면 문구 새기는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 ① 자신의 제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조건을 제시하며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③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있다.
④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3.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히, 히)'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 ① 하얗게 ② 팬찮은 ③ 닳도록 ④ 싫지만

4. 밑줄 친 부분이 '진행상'이 아닌 것은?

'진행상'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작상이다.

- ① 꽃이 시들어 간다.
② 운동을 하는 중이다.
③ 간식을 다 먹어 버렸다.
④ 동생이 음악을 듣고 있다.

5.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바람에 문이 닫혔다.
② 낮에 할머니를 배었다.
③ 봉투에 우표를 붙였다.
④ 옷 가게에 손님이 늘었다.

6.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휘기·픈남·곤 ㉠ 브르·매아·니:뵐·썩
꽃:도·코여·름·하느·니
㉡ :식·미기·픈 ㉢ .므·른·꺄므·래아·니그·출·썩
:내·히이·러 ㉣ 바·르·래·가느·니
-「용비어천가」 제2장-

- ① ㉠: 현재 쓰이지 않는 'ㄴ'(아래 아)가 사용되었다.
② ㉡: 글자 왼쪽의 방점으로 성조가 표시되었다.
③ ㉢: 끊어 적기로 표기되었다.
④ ㉣: 조사가 모음 조화에 따라 나타났다.

[7~8]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개요
주제: 보행 중 휴대 전화 사용 제한
I. 서론: 보행 중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
II. 본론: 보행 중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
1. 보행 중 교통사고가 증가함 ㉡
2.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짐 ㉢
3. 건강에 악영향을 줌 ㉣
III. 결론: 보행 중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대책 마련 촉구

(나) 글의 초고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 전화에 빠져 걷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행 중 휴대 전화 사용은 보행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행 중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휴대 전화 사용이 보행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휴대 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437건에서 848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b) 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할 경우 목과 허리의 디스크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목과 허리가 뻐뻐해져 걸을 때의 물리적 충격이 몸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행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사고와 건강 문제 등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c) 그 이유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 중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등의 d) 대책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7.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8. (나)의 a)~d)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숙인 채'로 고친다.
② b): 잘못된 접속어를 사용했으므로 '그러나'로 바꾼다.
③ c):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④ d): 잘못된 조사를 사용했으므로 '대책이'로 수정한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기 가는 저 각지 본 듯도 하구나
 ㉠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모습 이 거동이 임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심에
 나도 입을 믿어 탄생각 전혀 없어
 ㉡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날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 내 몸의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서러워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그것일랑 생각 마오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입을 모셔 봐서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몸이 편하실 때 몇 날일까
 봄추위 여름 더위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철 겨울철은 누가 모셨는가
 죽조반 조석 진지 예전과 같이 올리시나
 ㉣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나

- 정철, 「숙미인곡」 -

*백옥경: 옥황상제가 산다는 곳. 여기에서는 임금이 있는 궁궐을 가리킴.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이 드러난다.
- ②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된다.
- ③ 4음보의 율격이 주로 드러난다.
- ④ 두 명의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을 취한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백옥경을 떠난 까닭을 궁금해 하고 있다.
- ② ㉡: 임의 태도가 변한 이유로 추측하고 있다.
- ③ ㉢: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④ ㉣: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 있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우리가 이사 온 지 3년째 되던 해, 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우리 집 마당의 흰 철쭉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된 나는 아주머니가 집터의 옛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아주머니는 아마 전부터 이 동네에 길이 많이 익은 모양이지요?” 나물거리를 대강 사 챙겨 주고 나서 우리는 여자의 눈치를 살피 가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사연을 캐묻기 시작했다. 하고 보니 일은 과연 우리의 추측대로였다.

“이 동네 길만 익을라구요. 한 삼사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 자리엔 다른 집이 있었다오.”

아주머니는 금세 눈치를 알아채고 한숨 끝에 천천히 사연을 털어놓았다. 아주머니는 원래 일정 말기에 황해도 안악 마을의 한 농촌 마을에서 갓 스물에 이곳으로 출가를 해 왔는데, 예의 흰 철쭉은 그녀가 시집을 오기 전에는 친정집 남새*밭 가에

서 있었던 것이랬다. 그것을 어느 봄 친정어머니가 모처럼 딸네 집 먼 나들이를 오면서 고향 부모 정물로 파다 심어 주고 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그것을 심고 간 그해 여름 바로 8·15 해방을 맞게 됐고, 이어 서로 간에 소식이나 오갈 길이 끊기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 철쭉이라도 해마다 흰 꽃을 피워 주어 아주머니는 그것으로 이 30여 년을 고향 식구들 대하듯 마음을 달래 왔노라고 하였다. 한데 어느 해부터지 인근 땅값이 느닷없이 두 곱 세 곱으로 치솟는 바람에, 아주머니네를 포함한 온 동네가 마치 횡재라도 만난 듯 다투어 집과 땅을 팔고 너나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나갔다는 것이었다.

“그 몫쓸 땅값 바람에 멧모르고 모두 눈이 뒤집힌 게라요. 땅값에 눈이 아주 뒤집히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쉽게 제 살던 집을 다 팔고 떠날 수 있었겠소.”

아주머니는 뒤늦게 집을 팔고 떠난 것이 후회스러운 듯 아쉬운 한숨까지 지었다. 그래 아내가, 집을 팔더라도 그 철쭉이나 따로 파 옮겨다 심지 그랬느냐고, 짐짓 한마디 어긋나게 묻고 들자, 아주머니는 다시 북쪽 말 억양이 역력한 소리로,

“글쎄, 그뎨 그럴 경황도 없었다우. 그뎨 어찌 그리 쫓기 듯이 거래를 서둘러들 대던지 나무커녕 사람마저 깃들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터부터 비켜 나가 줘야 했을 형편이었으니까유.”

변명이라도 하듯 한숨 섞어 말하고는 새삼 꽃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흰 철쭉이 거기 남아 있게 된 것은 어쩔거나 그런저런 사연으로 해서였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어서였다. 아주머니네는 그때 이미 집값으로 받은 돈을 이 일 저 일로 거의 다 축내 버리고, 종내는 아들 내외와 성남 변두리에 셋방 한 칸을 얻어 살면서 인근 산간으로 나물 뜯이를 나다니고 있었는데, 하룻밤은 느닷없이 피곤한 잠결에 옛날 살던 집 철쭉꽃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 이청준, 「흰 철쭉」 -

*남새: 채소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사연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② 작품 밖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편지 형식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12.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주머니의 친정집은 황해도에 있었다.
- ② 아주머니는 해방을 계기로 친정집으로 이사 갔다.
- ③ 동네 사람들은 땅값이 올라 집을 팔고 사방으로 떠났다.
- ④ 아주머니네는 결국 집값으로 받은 돈을 거의 다 축내 버렸다.

13.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
- ② 이웃과의 관계 악화의 원인
- ③ 세대 간 갈등 해소의 실마리
- ④ 고향 식구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 주는 자연물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늘은 날더러 ㉠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A]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새우 끓어넘는 ㉢ 토방 텃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정림, 「목계장터」 -

14.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활용해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향토적 소재를 통해 토속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조성하고 있다.

15. [A]의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처한 고달픈 현실
- ② 화자가 즐거움을 느끼는 상황
- ③ 화자가 지향했던 이상적 세계
- ④ 화자가 도달하려는 학문적 성취

16. ㉠~㉣ 중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시적 의미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시는 남한강 목계 나룻가를 배경으로, 장돌뱅이의 떠도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서 가난하게 사는 노파가 있었다. 노파는 이웃 장자네 집에 가서 배를 짜고 받을 매서 얻어먹고 살았다. 어느 날 노파는 풀숲에서 이상한 알을 주워다 먹었는데 그 뒤로 자꾸 배가 불러 오기 시작했다. 열 달 만에 ㉠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건 사람이 아닌 구렁이였다. 노파는 구렁이를 뒤주에 집어넣고서 샷갓을 덮어놓았다.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서 장자네 세 자매가 차례로 할머니를 찾아왔다. 큰딸과 둘째 딸은 뒤주 속의 구렁이를 보고서 징그럽다며 낫을 찡그리고 돌아갔다. 그런데 막내딸은 구렁이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어머, ㉡ 구렁덩덩신선비 님을 낳으셨네요!”

막내딸이 돌아가자 구렁이가 그 처녀한테 장가를 가겠노라고 했다. 노파가 머뭇거리자 구렁이는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불 들고 어머니 배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장자한테로 가서 아들의 뜻을 전하자 장자는 세 딸을 불러서 노파의 아들한테 시집을 가겠느냐고 물었다. 위의 두 딸은 손사래를 쳤지만 막내딸은 선뜻 시집을 가겠노라고 했다.

“그럼요. 구렁덩덩신선비 님이신걸요!”

장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딸의 혼사가 치러지는 날, ㉢ 구렁이는 바지랑대¹⁾를 타고 담에 올라 빨랫줄을 타고서 초례청²⁾에 이르렀다. 혼례를 마친 첫날밤, 잣물에 목욕을 한 구렁이는 허물을 벗고서 사람이 되었다. 신선처럼 빛나는 멋진 선비였다. 신선비는 아내에게 허물을 건네 주면서 꼭꼭 잘 간직하라고 했다. 그 허물이 없으면 자기가 돌아올 수 없다고 했다.

동생이 신선 같은 신랑을 얻자, 두 언니는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했다. 신선비가 길을 떠나고 없는 즈음에 두 언니는 동생을 속여 뱀 허물을 훔쳐다가 아궁이에 넣어서 태워 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던 신선비는 허물이 타는 냄새를 맡고서 오던 길을 돌아서서 멀리멀리 떠나가고 말았다.

남편을 잃은 막내딸은 중의 옷차림을 하고서 남편을 찾아 길을 나섰다. 농부 대신 논을 갈아 주고서 길을 묻고, 까치한테 벌레를 잡아 주고 길을 묻고, 할머니의 빨래를 대신 해 주고서 길을 물었다. 할머니가 알려 준 대로 물에 복주개³⁾를 띄우고 그 위에 올라선 막내딸은 홀연 낮선 세상에 이르렀다. 각시는 새 쫓는 ㉣ 아이한테 길을 물어 구렁덩덩신선비 집을 찾아내 숨어들었다. 밤이 깊자 구렁덩덩신선비가 마당으로 나와서 달을 보면서, “달은 저리 밝는데 옛 각시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러자 각시가 쪽 나서면서, “신선비 님 옛 각지 여기 있대요.”

- 작자 미상, 「구렁덩덩신선비」 -

- 1)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 2) 초례청: 혼례를 치르는 장소
- 3) 복주개: 강원, 충청 지역 방언으로, 낚시로 만든 밥그릇의 뚜껑을 말함.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가 삽입되어 있다.
- ②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고 있다.
- ③ 비현실적인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 ④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18.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이야기는 남편이 떠난 후, 장자네 막내딸이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담고 있다.

- ① 막내딸이 노파가 낳은 아이를 보러 감.
- ② 막내딸이 구렁이에게 시집가겠다고 함.
- ③ 막내딸과 혼례를 마친 구렁이가 사람이 됨.
- ④ 막내딸이 남편을 찾기 위해 농부 대신 논을 갈아 줌.

19. ㉠~㉣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자동차를 생활필수품으로 여기는 미국에서조차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설계를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걷기의 운동 효과가 ㉠ 주목받으면서 오래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미국의 공공 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로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시 정부 차원에서 가로망, 보도망, 횡단보도 등 도시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 공개한다.

한편 미국의 한 민간 기업에서는 거리의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업체는 미국, 영국, 호주의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보행 환경을 점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걷기 좋은 도시의 순위를 매년 ㉢ 선정해 발표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도시에 여러 지점을 선정하고 그 지점과 그 지점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식당, 상가 등 생활 편의 시설의 거리를 측정하여 해당 지점의 보행 환경에 대한 점수를 ㉣ 산출한다. 해당 지점에서 도보 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 내에 편의 시설이 많을수록 그 지점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각 도시의 점수는 이들 지점들이 받은 점수의 평균값이다.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점수는 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는 시 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학계, 부동산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 황진욱 외,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행 환경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보행 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③ 걷기 좋은 도시에 대한 각국의 정의를 비교하고 있다.
- ④ 걷기 좋은 도시에 관한 상반된 주장을 절충하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생활필수품으로 여긴다.
- ② '미국'에서조차 도시 설계를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이다.
- ③ '미국의 공공 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 ④ '미국의 한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보행 환경 점수는 시 정부의 도시 계획 수립에만 활용된다.

2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함.
- ② ㉡: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터놓음.
- ③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 ④ ㉣: 계산하여 냄.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점¹⁾이 자극을 받아 통각 신경을 통해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될 때 우리는 통증을 느낀다. 통증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에는 '통로'라는 세포 소기관²⁾이 있다. 이 통로를 통해 세포의 안과 밖으로 여러 물질들이 오가면서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가 전달된다.

인체의 부위가 손상되면 세로토닌, 히스타민 등의 통각 유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이 통로를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는 통증 신호를 인식한다.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통로로는 치통, 피부염, 관절염 등의 염증성 통증에 관여하는 캡사이신 통로가 있다. 이 밖에도 상처를 입었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등 통증의 종류별로 다른 통로가 존재한다.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통각 신경은 다른 감각 신경에 비해 매우 가늘어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 예를 들어 몸길이가 30미터인 흰긴수염고래는 꼬리에 상처가 생기면 최대 1분 후에 아픔을 느낀다. 인간의 경우에도 압정을 모르고 밟았을 때 ㉠ 압정이 발바닥에 깊이 들어간 다음에야 아픔을 느끼게 된다.

통각 신경은 다른 감각 신경에 비해 가늘기 때문에 더 뻑뻑하게 분포될 수 있다. 피부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약 200개의 통점이 있는데 만약 통각 신경이 굵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통점이 배치될 수 없다. 이렇듯 통점이 뻑뻑하게 배치되면 아픈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내장 기관에는 통점이 1제곱센티미터당 4개에 불과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되는 것도 폐와 간에 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김정훈, 「상처가 아니라 통증 때문에 죽는다?」 -

- 1) 통점: 피부 표면에 퍼져 있어 자극을 받으면 아픔을 느끼는 감각점
- 2) 세포 소기관: 세포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분화된 구조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통증 신호는 통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 ② 인체의 부위가 손상되면 통각 유발 물질이 만들어진다.
- ③ 피부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약 200개의 통점이 있다.
- ④ 폐와 간에는 통점이 없기 때문에 폐암과 간암은 일찍 발견된다.

2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점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 ② 통각 신경이 발바닥에 없기 때문에
- ③ 통각 유발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 ④ 통각 신경이 신호를 느리게 전달하기 때문에

25.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면 ② 비록 ③ 혹시 ④ 왜냐하면